

1000만 관객 '택시' 타고 '5·18 광주'로 U턴

영화 '택시운전사' 흥행...그날의 광주 진실 알린 푸른눈의 목격·조력자들 헌틀리·에이모스 선교사, 원버그 평화봉사단원·인요한 소장 재조명 해아

영화 '택시운전사'가 흥행 대박을 기록하면서 '5월의 진실'을 해외에 알렸던 푸른 눈의 외국인들과 목숨 걸고 이들을 도왔던 조력



헌틀리 에이모스 원버그 인요한

철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팀 원버그가 5월23일 광주 전역을 돌아보고 해서 그를 태우고 잠상을 돌려봤다"며 "그가 한밤 중

전문가들은 "5·18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광주항쟁을 지켜본 이들의 증언을 발굴, 채록하는 등 재조명 작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영화의 실제 인물인 힌츠 페터와 마찬가지로, 이들은 객관적으로 오월을 지켜본 또 다른 목격자이면서 해외에 증언한 주역들이기 때문이다.

80년 광주기독병원 원목실장으로 재직했던 찰스 헌틀리(Charles Huntley·한국명 허철선) 선교사는 광주의 은인이다. 허 선교사 부부는 5·18의 참상을 촬영해 사택 지하 암실에서 직접 인화한 뒤 지인들을 통해 몰래 미국으로 보냈다. '택시운전사'의 실제 인물인 독일인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와 사택에서 직접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군인들의 총에 맞아 광주기독병원에서 수술한 환자들 몸에서 나온 'M16' 총알과 엑스레이 필름 등을 쟁취했다가 훗날 주한 미국대사관 등에 전했다. 허철선 선교사는 지난 7월 "유골의 절반을 광주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긴 채 영면했다.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팀 원버그(Tim Warnberg·1993년 작고)씨도 빼놓을 수 없다. 평화봉사단원이었던 그는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봉사하던 중 계엄군의 진압작전 직후 전남도청에 들어가 시신을 수습했다. 그는 자신이 작성한 일지와 관련 기록을 바탕으로 '광주항쟁 : 목격자의 견해'라는 종합보고서를 하와이대학 한국학 전문잡지에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국내외에서 영어로 발간된 최초의 5·18 관련 분석보고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광주의 참상을 당시 광주에 머물던 외신 기자들에게 알렸다. 당시 그와 동행했던 시민군 이흥

에 가볼 곳이 있다고 해서 따라 나섰는데 외신기자들이 모여 있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그와 함께 외신기자들을 만났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며 "'택시운전사'에서 통역하는 대학생(류준열 분)을 보면서 당시 내 처지와 비슷한 것 같아 감회가 새로웠다"고 회상했다.

목포에서 선교사로 활동했던 윌리엄 에이모스(William Amos·미국·작가)씨는 5·18을 목격했던 동료 평화봉사단원의 증언과 기록을 토대로 5·18을 직접 조명한 소설 'The Seed of Joy'를 발표하기도 했다. 그의 소설은 객관적 시각에서 국가폭력에 대항하는 광주시민의 저항의식을 사실적으로 기록했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를 평가받고 있다.

인요한(56·당시 의대생)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소장은 외신들에게 시민군이 목소리를 대변했던 주역이다. 인 소장은 5월 25일 도청에서 시민군 지도부를 취재하던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외신기자들을 만나 광주의 진실을 알렸다. 당시 시민군 대표는 3시간 남짓 진행된 통역을 통해 광주지역 사상자 현황, 도청 내 시민군들의 무기 및 식량 비축 현황, 통신·전기 확보 방안 등을 일목요연하게 외신기자들에게 밝혔다. 그는 전했다.

광주항쟁 당시 광주에 머물렀던 평화봉사단원과 외국인들을 추적하고 있는 최용주 5·18 기념재단 연구원은 "80년 광주에는 평화봉사단원과 외국인 선교사 등 외국인 목격자들이 상당수 있었다"며 "이들은 광주항쟁을 객관적으로 지켜본 인사들이기 때문에 광주 지역사회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영기·김용희기자 penfoot@kwangju.co.kr



5·18 최후의 항전지 온 '택시' 20일 오후 광주시 동구 옛 전남도청 앞에서 5·18 당시 실제 택시를 몰고 항쟁에 참여했던 장훈명씨가 영화 '택시운전사'에 등장했던 택시를 타고 손을 흔들고 있다. 광주시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21일 광주시청 1층에서 열리는 '아! 위르겐 힌츠페터 5·18광주진실전 그리고 택시운전사' 개막식에 앞서 광주시민들에게 먼저 택시를 선보이기 위해 마련됐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택시 타고 사적지·영화 속 장소 한바퀴 '5·18 택시운전사' 운영

광주문화재단, 22일~9월 3일

택시 5대로 2~4시간 코스 무료

'5·18 택시운전사' 운행 코스



"택시 타고 80년 5월 광주로 갑시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조명한 영화 '택시운전사'가 1000만 관객을 돌파한 가운데 광주시와 광주문화재단이 택시를 타고 5월 사적지와 영화 속 장소를 둘러보는 '5·18 택시운전사'를 운영한다.

오는 22일부터 9월3일까지 2주간 택시 5대가 2시간~4시간 걸리는 2개의 코스를 하루에 10번 무료로 운영한다. 또, 택시운전사가 직접 장소와 5·18에 얽힌 이야기를 설명해 줄 예정이다.

송정역과 광천터미널에서 각각 출발하는 택시는 국립 5·18 민주묘지, 80년 5월 당시 왜곡·축소 보도에 분노한 시민들이 불태웠던 옛 광주 MBC 사옥, 영화에서 류준열이 연기한 대학생 구제식의 주검을 비롯한 수많은 부상자가 누워있던 옛 적십자병원(현 서남대병원), 항쟁의 중심지인 옛 전남도청(현 아시아문화전당), 5·18민주화운동 기록관을 거쳐 다시 출발지로 향한다.

옛 카톨릭센터 건물인 5·18 민주화기록관에서

- ▲1코스 : 송정역-5·18 자유공원-광주광역시청-국립 5·18묘지-옛 광주MBC사옥-옛 적십자병원-금남로(옛 도청)-5·18 민주화운동기록관-송정역
- ▲2코스 : 광천터미널-광주광역시청-5·18 자유공원-국립 5·18묘지-옛 광주MBC사옥-옛 적십자병원-금남로(옛 도청)-5·18 민주화운동기록관-광천터미널

는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기록한 시민들의 일기, 선언문, 흑백사진과 필름 등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다.

'5·18 택시운전사'를 이용하고 싶은 방문객은 1~4인 단위로 날짜와 시간을 정해 전화로 예약하면 된다. 이용 시간은 오전 7시~오후 7시다. 접수·문의 062-670-7438,7485.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고마워요 힌츠페터" 20일 오전 광주 북구 망월동 옛 5·18묘역의 위르겐 힌츠페터 추모비 주변에 꽃과 편지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음주운전! 안됩니다!

음주운전은 본인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행위입니다.